

# FLY TO WIEN



음악과 낭만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빈,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배경이기도 했던 이 로맨틱한 도시로 떠날 예정이라면 그랜드 페르디난드 호텔을 주목할 것. 고풍스러운 빈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데다, 감각적인 인테리어까지 갖췄다. 에디터 김주현



빈 도심 링슈트라세 대로에 자리잡은 그랜드 페르디난드 호텔. 스타크 파크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으며, 오페라 하우스와 성 슈테판 사원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관광하기에 딱 좋은 위치다. 4대째 호텔을 운영해오고 있는 바이처 가문의 플로리안 바이처가 디자인했으며, 고성을 그대로 복원해놓은 듯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특징. 작년 가을에 오픈해 깔끔한 것은 물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호텔 안에는 18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 단연 으뜸은 그랜드 스위트룸. 커다란 식물과 화려한 샹들리에, 레드·그린·골드 컬러로 꾸민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궁전에 온 듯한 착각이 들지도 모른다. 테라스에서 페리스 관람차, 세인트 찰스 교회 등 아름다운 도시 풍경까지 한눈에 내려다보면 마음이 황홀해지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을 듯. 이 호텔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호스텔처럼 도미토리 형식의 객실이 있다는 것. 호텔의 모든 서비스도 이용 가능한데, 가격은 일반 호스텔과 비슷해 배낭여행을 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관광과 쇼핑을 즐긴 뒤엔 호화로운 호텔 음식을 즐겨볼 차례! 'Etage'는 호텔 투숙객만을 위한 바로, 루프 톱에 위치해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으니 연인들에게 딱!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을 기대하고 있다면 'Am Ring'을 찾을 것. 빈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슈니첼과 초콜릿 스펀지케이크인 자허토르테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 비행 티켓을 예약했다면 낭만의 도시인 빈을 관광하고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로맨틱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그랜드 페르디난드 호텔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자.



1. 그랜드 페르디난드 호텔의 전경. 2. 루프 톱 수영장에서 도시의 광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3.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그랜드 스위트룸. 4. 배낭 여행객들을 위한 도미토리 룸도 갖추고 있다. 5. 레스토랑 'Etage'는 해 질 녘이면 로맨틱하게 변신한다. 6. 레스토랑 'Am Ring'에서 맛볼 수 있는 디저트와 자허토르테.